제10장

한국 근대유학 연구

이원준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1년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근대유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학문별, 주제별로 종합 및 분석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연구성과의 범위는 19세기 중반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활동한 유학자들의 사상과 해당 시기의 유학 관련 담론을 주제로 한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 발표논문 및 철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상술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는 총 60편의 학술지 논문이다. 연구성과들을 계파적 측면에서 분류할 경우 성리학 논문이 43편, 양명학 논문이 7편, 기타 한국유학 논문이 10편으로, 작년과 비슷한 분량의 연구성과가 발표된 양명학 분야와 기타 분야에 비해 성리학 분야 연구성과가 작년보다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성리학 연구성과의 경우 노사학파, 간재학파, 한주학파, 화서학파 등 근대시기의 주요 성리학파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다.

상술한 연구성과는 한국의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학 관련 담론"이라는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본고에서 언급한 "유학 관련 담론"이란 크게 "전통유학의 심화", "전통유학의 변동", "근대사유로서의 유학"이라는 세 가지 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유학의 심화"란 기존 한국유학 전통에서 이어지는 유학사상의 전개 및 심화를 뜻하고, "전통유학의 변동"이란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전통 유학에 대한 한계를 목도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변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이란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국권피탈에 대한 저항 담론의 기반으로서 유학사상이 점유하는 지위를 의미한다. 물론 상술한 세 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찰한 연구는 물론,

상술한 담론과 무관한 연구성과 역시 발표된 만큼, 상술한 세 가지 주제와 무관하거나 세 가지 주제가 혼재된 연구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2. 학문별 분류

1) 성리학

근대 한국유학 연구성과 가운데 성리학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는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43편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노사학파를 주제로 한 연구가 1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재학파 연구가 12편, 한주학파 연구가 7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이 밖에도 화서학파 연구가 4편, 상술한 학파 기준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리학 연구가 2편 발표되었다. 개인 성리학자의 경우, 간재 전우(艮齋 田愚, 1841~1922)를 주제로 한 논문이 8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노사학파의 송사 기우만(松沙 奇宇萬, 1846~1916)이 4편, 한주학파의 회봉 하겸진(晦峯 河謙鎭, 1870~1946)이 2편이 발표되었다. 즉, 학파로서는 노사학파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다면 학자로서는 간재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학파간 비교논문은 간재와 성재 유중교(省齋 柳重敎, 1832~1893)의 심설논변을 다룬 이상익의 논문이 유일한데, 해당 논문은 간재학파와 화서학파에 각각 배치하였다.

(1) 노사학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근호	송사 기우만의 심학(心學)과 부정척사(扶正斥邪)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상현	삼산 권기덕의 성리설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3	김세오	浮海 安秉宅과 제주 蘆沙學派에 대한 小考	東方漢文學 89	동방한문학회

4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강학활동과 蘆沙學派의 확대	동양고전연구 84	동양고전학회
5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학문 활동과 蘆沙 性理說의 계승	남명학연구 71	경남문화연구원
6	박학래	기우만(奇宇萬) 문인들의 강학 활동과 노사 학맥(蘆沙學脈)의 지속.	儒學硏究 5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양순자	「외필(猥筆)」의 사상적 단초를 찾아서 — 기정진(奇正鎭)과 조성가(趙性家)의 문답을 중심으로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8	윤호진	農山 鄭冕圭의 蘆沙學 繼承과 學問世界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9	이향준	「외필(猥筆)」, 1902-외필논쟁(猥筆論爭)의 시작-	汎韓哲學 100	범한철학회
10	이향준	「외필(猥筆)」의 외침 —기사(騎士)는 죽었는가?—	儒學硏究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1	이향준	이직현(李直鉉)의 「호행일기(湖行日記)」 고찰	儒學硏究 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이향준	박로술(朴魯述)의 외필론(猥筆論)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13	이형성	대곡(大谷) 김석구(金錫龜)의 리일원적(理一元的) 사유(思惟)에서의 선악론(善惡論)과 경론(敬論)	동양문화연구 34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14	이형성	東塢 曺毅坤의 처사적 삶과 天理 志向 양상	東洋古典硏究 82	동양고전학회
15	이형성	重軒 黃澈源의 蘆沙學 繼承에 의한 心性論 —攷 -明德과 人心道心說을 中心으로-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16	전성건	송산 권재규의 心性一體論과 向華背夷論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17	조우진	월파(月波) 정시림(鄭時林)의 주리설(主理說) — 교유관계(交遊關係)와 「외필(猥筆)」 논변(論辨)을 중심으로 —	東洋哲學硏究 105	동양철학연구회
18	조우진	石田 李最善의 理 중심적 실천의식	용봉인문논총 58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	조우진	야은(野隱) 박정규(朴廷奎)의 삶과 도설(圖說)로 보는 가정교육	호남학 70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노사학파 관련 연구성과는 1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다만, 이 가운데 이향준이 4편, 이형성과 조우진, 박학래가 각각 3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소수의 연구자가 특히 집중적으로 노사학파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연구성과 가운데 노사의 대표작인 「외필(猥筆)」을 주제로 한 이향준의 논문 2편과 양순자의 논문을 제외한 16편의 논문이 노사학파에 속한 학자들을 발굴하고 그 사상적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외필」을 주제로 한 3편의 논문 가운데 이향준의 논문 1편과 양순자의 논문은 「외필」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이향준의 다른 논문인 「「외필(猥筆)」, 1902」은 「외필」을 둘러싼 성리학계의 논의를 "「외필」논쟁"으로 규정하고 1902년 이전의 「외필」 관련 문헌들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노사학파 개별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성과가 발표된 인물은 기우만으로, 박학래의 논문 3편과 김근호의 논문 1편이 발표되었다. 박학래의 논문은 송사를 매개로 한 노사 사상의 계승 및 전파양상을 고찰하였으며, 김근호의 논문은 송사의 학문이 단순한 노사의 조술에 그치지 않고 노사의 사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심학(心學)'과 위정척사의 측면에서 강조된 '부정척사(扶正斥邪)' 등을 제창함으로써 독자적인 학문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밖에 노사 후학 관련 연구는 각 인물당 1편씩 발표되었으며, 이들 연구는 크게 ①기존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노사 문인을 발굴한 연구, ②기발표된 연구성과가 있으나 해당 문인의 독자적 성리설 또는 노사학파로서의 특징을 고찰한 연구, ③노사학파의 전파 양상을 고찰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김상현, 윤호진, 조우진의 논문과 이향준의 박로술 관련 논문, 이형성의 논문 3편이 ①번에 해당하고, 김근호, 이향준, 전성건의 논문과 조우진의 논문 2편은 ②번

에 해당하며, 김새미오와 박학래의 논문은 ③번에 해당한다.

(2) 간재학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길태은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2	김현수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예학사상 고찰 — 상례(喪禮)를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3	김혜수	간재 후학 입와(立窩) 김종연(金鍾淵)의 삶과 성리학설 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4	도민재	송운 정운한(松雲 鄭雲翰)의 삶과 학문세계	율곡학연구 45	(사)율곡학회
5	선병삼	간재 전우의 신정통주의 성리학	人文科學研究 44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	유지웅	간재 전우의 화서학파 성리설 비판과 문제의식	동서철학연구 102	한국동서철학회
7	이상익	간재(艮齋) 전우(田愚)와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의 심설논변(心說論辨)에 관한 고찰	동양문화연구 34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8	이선경	간재 전우의 역학관 시론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9	이승환	간재 전우의 미발론과 정좌관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10	이천승	수기치인의 관점에서 본 간재 전우의 '혈구지도(絜矩之道)' 주석 분석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11	이형성	경와(敬窩) 엄명섭(嚴命涉)의 수도적(守道的) 유학계승(儒學繼承)과 심성합일적(心性合一的) 수양론(修養論)	退溪學論叢 38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2	정종모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과 그 철학적 의의	東洋哲學研究 105	동양철학연구회

노사학파 연구가 노사 후학들의 면면을 발굴하는 데 집중되어 있

다면, 간재학파 연구의 경우 간재 본인의 사상의 다양한 면모를 발굴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전체 연구성과의 2/3인 8편의 논문이 간재 개인의 사상을 다루었으며, 성리설(선병삼, 유지웅, 정종모) 뿐만 아니라 경학(길태은, 이천승), 수양론(이승환), 예학(김현수), 역학(이선경)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간재 연구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부분은 간재 사상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적다는 점이다. 길태은의 논문을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는 간재가 속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 언급이 드문 편이다.

간재 후학들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 3편(김혜수, 도민재, 이형성)은 모두 기존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간재 후학을 발굴하고 그들의 유학사상을 논의함으로써 현대로까지 이어지는 간재학의 계승 양상과 격동하는 세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유학사상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다른 성리학파와의 관계를 다룬 2편의 논문은 모두 심설논변의 상대 진영인 화서학파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다만, 유지웅의 논문은 간재의 화서학파 비판 양상을 다룸으로써 간재 본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상익의 논문은 간재와 성재의 학설을 대비적으로 비교하여 이들의 논의가 간재학파와 화서학파 양자에 미친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3) 한주학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근호	대계(大溪) 이승희(李承熙)의 성리설(性理說).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낙진	허유의 심설 토론과 갈등의 양상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종석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해석을 둘러싼 쟁점과 맥락 — 이만인(李晩寅)과 윤주하(尹胄夏)의 논변을 중심으로 —	退溪學報 149	퇴계학연구원
4	이영숙	일제강점기 전통 지식인으로서 회봉 하겸진의 위상	남명학연구 71	경남문화연구원
5	전병철	자동(紫東) 이정모(李正模)의 한주(寒洲) 성리설(性理說) 수용 과정과 심설(心說) 논변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6	한길로	삼주 이기원의 삶과 한주학(寒洲學) 전승의 일면 고찰 : 독립운동 조력과 문집발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8	한국민족문화연구소
7	陳亦伶, 김은영	강유위의 경학사상에 대한 하겸진의 비판	인문과 예술 10	인문예술학회

한주학파와 관련된 연구성과는 총 7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한주학파의 연구 성과 가운데 『동유학안(東儒學案)』의 저자 하겸진을 다룬 2편의 논문과 이기원을 다룬 한길로의 논문을 제외한 4편의 논문이 한주학파와 타 학파 간의 성리설 논변을 주제로 하였다. 이 가운데 3편의 논문(김근호, 김낙진, 김종석)이 한주의 심즉리(心卽理)를 둘러싼 한주학파와 타 영남학파의 논변 양상을 다루었고, 전병철의 논문은 한주학파와 노사학파 간의 심설논변을 다루었다. 회봉을 다룬 두 편의 연구는 성리설보다는 근대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다루었다. 다만, 陳亦伶은 회봉을 한주학파의 일원으로 인정한 반면, 이영숙은 회봉의 사상은 한주뿐만 아니라 남명학적 가학연원이 혼합하여 영남 좌·우도의 사상적 맥락이 혼합된 결과라고 보았다.

(4) 화서학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태옥	근대 유교지식인의 평화사상과 현실적 구현: 위정척사파의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 11	인문예술학회
2	이상익	간재(艮齋) 전우(田愚)와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의 심설논변(心說論辨)에 관한 고찰	동양문화연구 34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3	이향배	추강(秋江) 백낙관(白樂寬)의 위정척사활동 연구	儒學硏究 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하윤서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과 '관일약(貫一約)'의 유학적 의미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연구원

화서 및 화서학파를 다룬 연구성과는 총 4편의 논문이 있다. 한주학파 관련 연구성과와 마찬가지로 화서학파 역시 화서 본인을 다루었다기보다는 화서 후학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었으며, 심설논변과 관계된 이상익의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이 구한말 항일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 가운데 박태옥과 이향배의 논문은 화서학파의 위정척사 사상을 다루었고, 하윤서는 의암 유인석(毅菴 柳麟錫, 1842~1915)이 의병활동 과정에서 제시한 규범인 관일약(貫一約)의 유학적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5) 기타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성희	근대 호서산림(湖西山林)의 학문적 위기 대응 방식과 사상적 배경 —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과 심석재(心石齋) 송병순(宋秉珣)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2	정순우	19세기말 서원 강회를 통한 학파의 분화와 학설의 형성과정 —주리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상술한 학파 분류에 속하지 않은 성리학 관련 연구성과는 2편의 논문이 있다. 이 가운데 정성희의 논문은 연재학파라는 별도의 학맥으로 분류되는 연재 송병선(淵齋 宋秉璿, 1836~1905)과 심석재 송병순(心石齋 宋秉珣, 1839~1912)의 현실대응양상과 그 이론적 기반을 다루었으며, 정순우의 논문은 19세기 말엽 진행된 강회(講會)를 통해 퇴계학파, 한주학파, 노사학파, 화서학파 등 주리론 계열의 사상의 분화과정을 살펴보았다.

2) 양명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용환	도덕함에 관한 박은식의 인식지평 연구	退溪學論叢 38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	김우형	박은식 유교구신론의 철학적 기획: 구학(舊學)에서 신학(新學)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0	한국동서철학회
3	김우형	백암 박은식 양명학론의 독창성과 특색 —본령(本領)학문과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孔子學 44	한국공자학회
4	박정심	박은식 『王陽明先生實記』의 사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5	박태옥	근대 유교지식인의 주체 인식과 사회적 구현의 문제 —정인보의 '감통(感通)'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9	한국동서철학회
6	이대승	위당 조선학의 본심감통론이 지닌 시대적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74	한일관계사학회
7	임부연	박은식의 근대적 심학 — '진아(眞我)'의 구성과 특징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14	대동문화연구

근대 한국유학 연구성과 가운데 양명학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는 7편의 연구논문으로, 인물별로는 백암 박은식(白巖 朴殷植, 1859~1925)을 주제로 한 논문이 5편,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 1892~1950)를 주제로 한 논문이 2편 발표되었다. 모든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근대 지식인으로서 박은식과 정인보가 양명학에 기초하여 제시한 사상이 지니는 근대적, 현대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박은식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박은식 사상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박은식이 당대 중국 사상가인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의 영향을 받아 주자학적 격물치지설의 한계를 근대 과학기술과 결부하여 지적하면서 양명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지식탐구와 도덕실천의 융합을 도모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박정심의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에서는 주자학을 완전히 배척한 량치차오와는 달리 박은식의 경우 주자학과 양명학의 융합을 시도하였다고 보았으며, 이것이 량치차오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정인보를 주제로 한 2편의 논문은 모두 정인보가 양명학에 기초하여 제시한 "감통(感通)"이 일제치하 조선인의 주체성 확립에 기여한 바를 고찰하였다. 이대승은 정인보의 본심감통론이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878~1967)를 필두로 한 일본 관학이 제시한 유학망국론, 조선인 무주체성론, 일본의 충효군국주의 등에 대한 대응의 논리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박태옥은 정이보 감통 철학이 지니는 당대적 의미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과 각자도생의 논리나, 이기적 주체로서 타자를 배제하는 습성에서 오는 '공멸하는 사회적 존재'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아 현대 사회에도 유의미한 사유가 됨을 지적하였다.

3) 기타 한국유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윤경	설태희의 근대 유학연구 비판(I) –캉유웨이의 원시유학연구 비판을 중심으로–	汎韓哲學 103	범한철학회
2	김윤경	설태희의 실학관과 조선성리학 비판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3	김지은	근대전환기 석주 이상룡의 사상적 변화와 유교개혁론의 연원	국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4	오주연, 박민철, 윤태양	1910년대 유교비판의 담론지형: 신지식층의 『학지광(學之光)』 논설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0	한국동서철학회
5	이병태	한국 현대 사상사의 재조망과 '모더니티' : 20세기 전반 유학사 저술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85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6	정병석, 이오륜	명암(明庵) 이태일(李泰一)의 역학관	민족문화논총 79	민족문화연구소
7	한보람	19세기 경화학계 개혁론의 가치 지향과 현실 대응	韓國思想史學 67	한국사상사학회
8	허재영	근대 중국과 한국에서의 '격치(格致)' 개념 형성과 변화 과정	한중인문학연구 71	한중인문학회
9	황영례	硯山 道統祠의 孔敎運動과 1930년대 安淳煥의 朝鮮儒敎會 儒敎宗敎化運動	퇴계학논집 28	영남퇴계학연구원
10	황지원	진암(眞庵) 이병헌(李炳憲)의 공교사상(孔敎思想)에 있어서 '심즉신(心卽神)'의 의미와 특성	동아인문학 55	동아인문학회

상술한 연구성과 이외에도 한국 근대유학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10편의 논문이 있다. 먼저, 김윤경의 논문들은 도덕실천을 근본으로 하는 유학적 본질의 회복을 주장한 오촌 설태희(梧寸 薛泰熙, 1875~1940)가 형이상학에 치중하였던 전근대 조선 성리학을 비판하고 캉유웨이(康有爲, 1858~1927)의 성선(性善) 해설과 명성(命性) 해설의 한계를 지적하는 과정을 살펴 본 것이다. 김지은의 논문은 석주

이상룡(石洲 李相龍, 1858~1932)이 신학문을 수용하는 과정을 정재학파와의 연관성 속에서 검토함으로써 전근대와 근대의 사상을 단절의 측면이 아닌 연속의 측면에서 조망하였다. 오주연, 박민철, 윤태양의 논문은 조선유학생학우회 회보인 『학지광(學之光)』에 나타난 유교비판을 통해 1910년대 일본유학을 통해 서구 지식을 습득한 신지식층이 어떻게 유교를 식민의 조건과 연결시켜 담론화했는지 분석한 것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1910년대 유교비판 담론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역사적 환경과 사회적 조건이 발생시킨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수행된 일종의 지성적 분투라고 평가하였다. 이병태의 논문은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과 하겸진의 『동유학안』 등 전통과 근대에 걸쳐 있던 인물들의 유학사 저작이 전통에 대해 타자화된 관점을 전제하는 일제강점기 이후의 유학사 저작에 비해 지적 전통의 내적 운동을 면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병석, 이오륜의 논문은 주자학적 역학을 기초로 하되 수(數)의 관점을 통하여 주역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한 명암 이태일(明庵 李泰一, 1860~1944)의 독창적인 역학 사상의 면면을 살펴본 것이다. 한보람의 논문은 19세기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개화파 인물들의 인적 연결망의 범위를 18세기 노론 경화학계, 특히 연암학파로 확장함으로써 18세기 연암그룹의 인적 네트워크와 사상적 특징이 19세기 박규수 계열 개혁세력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허재영의 논문은 19세기 서구학문의 유입에 따라 전통적 "격물치지"가 근대 과학을 서술하기 위한 "격치(格致)"라는 용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근대 학문 형성 과정에서 미친 영향을 살펴 본 것이다. 황영례와 황지원의 논문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유교의 종교화 운동, 즉 공교(孔敎) 운동

을 다룬 것이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안순환과 이병헌은 유교의 종교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유학의 사상적, 철학적 측면에서 개혁하고자 한 당시의 다른 유교개혁 운동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3. 주제별 분류

본고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술한 연구성과는 한국의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통유학의 심화”, “전통유학의 변동”,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전근대 한국 유학의 주류 사상이 성리학이었던 만큼 “전통유학의 심화”와 “전통유학의 변동”은 사실상 “성리학의 심화”와 “성리학의 변동”으로도 볼 수 있다. 상술한 세 가지 주제와 무관하거나 세 가지 주제가 혼재된 연구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 전통유학의 심화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길태은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2	김근호	대계(大溪) 이승희(李承熙)의 성리설(性理說).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낙진	허유의 심설 토론과 갈등의 양상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4	김상현	삼산 권기덕의 성리설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5	김종석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해석을 둘러싼 쟁점과 맥락 — 이만인(李晩寅)과 윤주하(尹胄夏)의 논변을 중심으로 —	退溪學報 149	퇴계학연구원
6	김새미오	浮海 安秉宅과 제주 蘆沙學派에 대한 小考	東方漢文學 89	동방한문학회
7	김현수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예학사상 고찰 — 상례(喪禮)를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8	김혜수	간재 후학 입와(立窩) 김종연(金鍾淵)의 삶과 성리학설 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9	도민재	송운 정운한(松雲 鄭雲翰)의 삶과 학문세계	율곡학연구 45	(사)율곡학회
10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강학활동과 蘆沙學派의 확대	동양고전연구 84	동양고전학회
11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학문 활동과 蘆沙 性理說의 계승	남명학연구 71	경남문화연구원
12	박학래	기우만(奇宇萬) 문인들의 강학 활동과 노사 학맥(蘆沙學脈)의 지속.	儒學硏究 5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3	선병삼	간재 전우의 신정통주의 성리학	人文科學硏究 44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4	양순자	「외필(猥筆)」의 사상적 단초를 찾아서 — 기정진(奇正鎭)과 조성가(趙性家)의 문답을 중심으로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15	유지웅	간재 전우의 화서학파 성리설 비판과 문제의식	동서철학연구 102	한국동서철학회
16	윤호진	農山 鄭冕圭의 蘆沙學 繼承과 學問世界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17	이상익	간재(艮齋) 전우(田愚)와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의 심설논변(心說論辨)에 관한 고찰	동양문화연구 34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18	이선경	간재 전우의 역학관 시론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19	이승환	간재 전우의 미발론과 정좌관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20	이천승	수기치인의 관점에서 본 간재 전우의 '혈구지도(絜矩之道)' 주석 분석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21	이향준	「외필(猥筆)」, 1902-외필논쟁(猥筆論爭)의 시작-	汎韓哲學 100	범한철학회
22	이향준	「외필(猥筆)」의 외침 —기사(騎士)는 죽었는가?—	儒學硏究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3	이향준	이직현(李直鉉)의 「호행일기(湖行日記)」 고찰	儒學硏究 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4	이향준	박로술(朴魯述)의 외필론(猥筆論)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25	이형성	대곡(大谷) 김석구(金錫龜)의 리일원적(理一元的) 사유(思惟)에서의 선악론(善惡論)과 경론(敬論)	동양문화연구 34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6	이형성	東塢 曺毅坤의 처사적 삶과 天理 志向 양상	東洋古典研究 82	동양고전학회
27	이형성	重軒 黃澈源의 蘆沙學 繼承에 의한 心性論 —攷 –明德과 人心道心說을 中心으로–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28	이형성	경와(敬窩) 엄명섭(嚴命涉)의 수도적(守道的) 유학계승(儒學繼承)과 심성합일적(心性合一的) 수양론(修養論)	退溪學論叢 38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9	전성건	송산 권재규의 心性一體論과 向華背夷論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30	조우진	월파(月波) 정시림(鄭時林)의 주리설(主理說) —교유관계(交遊關係)와 「외필(猥筆)」 논변(論辨)을 중심으로 —	東洋哲學研究 105	동양철학연구회
31	조우진	石田 李最善의 理 중심적 실천의식	용봉인문논총 58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2	조우진	야은(野隱) 박정규(朴廷奎)의 삶과 도설(圖說)로 보는 가정교육	호남학 70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33	정병석, 이오륜	명암(明庵) 이태일(李泰一)의 역학관	민족문화논총 79	민족문화연구소
34	정순우	19세기말 서원 강회를 통한 학파의 분화와 학설의 형성과정 —주리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35	정종모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과 그 철학적 의의	東洋哲學研究 105	동양철학연구회
36	전병철	자동(紫東) 이정모(李正模)의 한주(寒洲) 성리설(性理說) 수용 과정과 심설(心說) 논변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성리학 관련 논문 35편과 기타 한국유학 관련 논문 1편(정병석, 이오륜)은 전근대 학문 전통에 기반한 당대 지식인들의 철학사상을 주로 다루었다. 이 가운데 노사학파의 확산 관련 논문(김새미오, 박학래)과 간재 후학 관련 논문(김혜수, 도민재, 이형성)은 연구대상으로 삼은 인물들이 시대적 상황에 조응하는 과정을 다루었으나, 논지 전개 과정에서 후술할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사상"이라는 특성이 확인되지 않은 까닭에 노사학, 간재학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유학의 심화"로 분류하였다.

2) 전통유학의 변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용환	도덕함에 관한 박은식의 인식지평 연구	退溪學論叢 38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	김우형	박은식 유교구신론의 철학적 기획: 구학(舊學)에서 신학(新學)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0	한국동서철학회
3	김우형	백암 박은식 양명학론의 독창성과 특색 —본령(本領)학문과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孔子學 44	한국공자학회
4	김윤경	설태희의 실학관과 조선성리학 비판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5	김지은	근대전환기 석주 이상룡의 사상적 변화와 유교개혁론의 연원	국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6	박정심	박은식 『王陽明先生實記』의 사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7	오주연, 박민철, 윤태양	1910년대 유교비판의 담론지형: 신지식층의 『학지광(學之光)』 논설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0	한국동서철학회
8	임부연	박은식의 근대적 심학 — '진아(眞我)'의 구성과 특징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14	대동문화연구
9	허재영	근대 중국과 한국에서의 '격치(格致)' 개념 형성과 변화 과정	한중인문학연구 71	한중인문학회

박은식을 주제로 한 연구와 일부 논문은 "전통유학의 변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박은식의 양명학적 사유가 강화학파 등 기존 한국양명학의 맥락에 닿아 있다는 점을 논증한 연구성과가 있다면 그 논문은 "전통유학의 심화"로 볼 여지가 있지만, 상술한 논문들에서는 박은식과 기존 한국양명학의 연결점을 언급하지 않는 관계로 이들을 "전통유학의 변동"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기존 성리학 전통의 변용을 다룬 논문이 6편(김용환, 김우형, 김지은, 박정심, 임부연), 성리학사상에

대한 비판 양상에 초점을 둔 논문이 2편(김윤경, 오주연 등), 서구 학문의 유입에 따른 전통 학문용어의 변동을 다룬 논문이 1편(허재영)이다.

3) 전통유학의 변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근호	송사 기우만의 심학(心學)과 부정척사(扶正斥邪)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2	박태옥	근대 유교지식인의 평화사상과 현실적 구현: 위정척사파의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 11	인문예술학회
3	박태옥	근대 유교지식인의 주체 인식과 사회적 구현의 문제 —정인보의 '감통(感通)'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9	한국동서철학회
4	이대승	위당 조선학의 본심감통론이 지닌 시대적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74	한일관계사학회
5	이영숙	일제강점기 전통 지식인으로서 회봉 하겸진의 위상	남명학연구 71	경남문화연구원
6	이향배	추강(秋江) 백낙관(白樂寬)의 위정척사활동 연구	儒學硏究 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정성희	근대 호서산림(湖西山林)의 학문적 위기 대응 방식과 사상적 배경 —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과 심석재(心石齋) 송병순(宋秉珣)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8	하윤서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과 '관일약(貫一約)'의 유학적 의미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연구원
9	한길로	삼주 이기원의 삶과 한주학(寒洲學) 전승의 일면 고찰 : 독립운동 조력과 문집발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8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 근대유학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인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을 고찰한 논문은 총 9편으로, 노사학파와 화서학파가 주축이 된 위정척사를 주제로 한 논문이 3편(김근호, 박태옥, 이향배), 학술적 대응으로 저항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다룬 논문이 3편(박태옥, 이대승, 이

영숙), 의병활동 및 독립운동에 투영된 유학사상을 다룬 논문이 2편(하윤서, 한길로)이다. 정성희의 논문은 연재학파 인물들의 순도(殉道)로 구현된 저항정신의 유학적 배경을 다루었다.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을 다룬 연구성과 가운데 2/3인 6편의 논문이 구한말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성리학이 외세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상을 다루었다.

4) 기타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윤경	설태희의 근대 유학연구 비판(I) –캉유웨이의 원시유학연구 비판을 중심으로–	汎韓哲學 103	범한철학회
2	이병태	한국 현대 사상사의 재조망과 '모더니티' : 20세기 전반 유학사 저술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85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3	한보람	19세기 경화학계 개혁론의 가치 지향과 현실 대응	韓國思想史學 67	한국사상사학회
4	황영례	硯山 道統祠의 孔敎運動과 1930년대 安淳煥의 朝鮮儒敎會 儒敎宗敎化運動	퇴계학논집 28	영남퇴계학연구원
5	황지원	진암(眞庵) 이병헌(李炳憲)의 공교사상(孔敎思想)에 있어서 '심즉신(心卽神)'의 의미와 특성	동아인문학 55	동아인문학회
6	陳亦伶, 김은영	강유위의 경학사상에 대한 하겸진의 비판	인문과 예술 10	인문예술학회

상술한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연구성과는 총 6편으로, 이 가운데 조선 학자들의 캉유웨이 비판을 다룬 2편의 논문(김윤경, 陳亦伶)과 일제강점기 유학의 종교화 과정을 다룬 논문 2편(황영례, 황지원)이 있다. 이 밖에도 20세기 초반 인물들의 유학사 서술을 주제로 한 이병태의 논문과 19세기 박규수 계열의 인적 네트워크의 범위를 18세

기 연암학파로 확장한 한보람의 논문이 있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우선, 이향준은 개인 연구자로서는 가장 많은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가운데 3편이 노사의 「외필(猥筆)」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노사의 사상과 「외필」에 대한 논자의 이해가 십분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는 논문은 「「외필(猥筆)」의 외침 —기사(騎士)는 죽었는가?—」이다. 이 논문은 주리/주기 이분법의 용례, 성리학적 사유 양식, 시대적 의의라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해 「외필」의 철학적 성격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논자는 노사가 「외필」을 통해 이이의 성리학이 주기론이라는 반론에 맞서 주리적으로 해석하려 하였으며, 이이의 '리무위'의 포함도식적 사유를 주축으로 하면서도 리에 힘을 도입하려는 이황식의 발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외필」이 조선의 사족들에게 그들이 역사적 구성로서의 조선 위에 탄 "기사"라는 사실을 환기시킨 저작으로, 사족들이 자신들의 도와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내적 논리를 성리학의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논문은 「외필」이 근대 한국유학 주요 텍스트로서 점유하는 지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외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원용된 세 가지 틀의 경우 논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지점이 발견된다.

먼저 "주리/주기 이분법" 용례의 경우, 논자는 주리/주기의 구분법을 한국유학의 내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고 퇴계의 이분법과 율곡 비판자의 이분법, 그리고 율곡학 내에서의 자체적 구분이라는 세 가지 용례를 제시하고, 「외필」은 이 중 세 번째 맥락에 닿아 있다고 보았다. 논자의 주장은 일견 합당해 보이나 논문에서는 논지 전개의 토대인 주리/주기 용례 구분법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줄 선행 연구

가 제시되어 있지 았았다. 물론 논자는 윤사순의 관점에 기반하여 주리/주기의 틀을 원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리/주기의 이분법하면 연상되는 다카하시 도루의 규정에 대한 현대 학계의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축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리/주기 그 자체에 대한 현대 학계의 시각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으며, 설령 세 단계의 주리/주기 규정이 논자에게서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를 언급했어야 했다. 이어서, 논자는 노사가 율곡에 기초하면서도 퇴계의 논리를 일부 수용하였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퇴계가 "리약기강(理弱氣强)"을 부정하고 "리강기약(理强氣弱)"을 제시하면서 "리와 기의 관계를 일종의 힘의 강약관계를 통해 사유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후 인승마 비유 역시 "힘의 강약 관계의 사유 내용"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인승마 비유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기의 강약 문제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논자의 강약 이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필」의 시대적 의의에 대한 논자의 언급은 20세기 한국유학 저술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바이지만, 논자의 주장 자체는 별도의 중간 논의가 없이 말미에 간략하게 나온 까닭에 논리적 비약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부분이 과연 논자가 말한 「외필」의 철학적 의미를 규정하는 세 가지 축의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전통유학, 특히 전근대 지식인들의 주요한 사유의 틀이었던 성리학이 격동하는 근대시기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고찰하는 작업은 성리학이 현대사회에도 유의미한 사유의 틀임을 논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당대 성리학 그 자체의 철학적 맥락을 짚는 작업과 당대 사회에 놓인 전통지식의 역할을 고찰하는 작업을 동등한 비중으로 하

나의 학술논문에 반영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김근호의 「송사 기우만의 심학(心學)과 부정척사(扶正斥邪)」은 주목할 만하다. 논자는 송사의 성리설이 노사의 성리설에 머물렀다거나 그의 의병활동이 초기 의병활동에 한정되었다는 기존 학계의 평가를 재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에 송사의 학문이 노사의 성리설을 계승하지만 태극의 체용, 명덕을 본심뿐만 아니라 인의예지의 심(心)으로 확장하여 보는 심설(心說)을 통해 심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학의 현실적 실천이 사문의 인물과 그들의 공간들을 붙들면서 척사(斥邪)의 의리를 실천하는 부정척사의 형태로 구현되었다고 보았다. 논자의 주장대로 송사의 학문이 심학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가 필요한 데다가, 부정척사의 실천 양태에 대해서도 강학 활동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중심으로 고찰한 만큼 상술한 심학과의 연계가 드러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다만, 앞서 살펴본 이향준의 논문처럼 성리학의 철학적 면모에 집중하면 그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비중이 줄고, 반대로 당대 성리학의 사회적 역할을 논증하는 경우 또한 성리학의 철학적 맥락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양적인 측면에서 양자를 균형 있게 고찰한 논자의 연구 방법은 향후 전통 성리학이 근대사회에 점유한 지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은 분명하다.

5. 평가와 전망

2021년에 발표된 한국 근대유학 관련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예년에 비해 성리학 분야의 연구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학계에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근대 유학자들이 다수 발굴되었다. 이를 통해 근대라는 한국사의 격동기에 전통 지식인들의 고뇌와 분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순수한 철학적 영역에서 성리학을 다루는 경향이 우세한 가운데, 개중에는 일제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으로서의 성리학을 다룬 연구 성과도 다수 발표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작년의 경우 비교적 미진하였던 각 학파 간의 비교 연구의 경우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각 계파의 사상을 동일한 비중에서 비교하였다기보다는 특정 계파가 상대 계파의 학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근대 한국유학의 양명학 연구와 관련하여 성리학과의 단절보다는 양자의 결합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박은식의 대조군으로 설정된 량치차오가 주자학과 양명학 양자를 분리한 상태에서 양명학을 채택한 반면, 박은식의 경우 주자학, 즉 전통 성리학적 맥락과 연계한 상태에서 양명학을 수용하였다고 보았다. 2021년의 근대 한국유학 연구 동향에서 파악되는 지점은 성리학이 당대 사회에 어떠한 형태로 조응하게 되었는가를 고찰하는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대 성리학에 대한 근래의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대폭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수백년을 이어져 온 학문전통인 성리학은 근대라는 거친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한국 지성사의 큰 축으로 작용한 셈이다. 저항담

론으로서의 성리학 연구와 더불어, 성리학과 양명학의 결합 양상 연구가 활발해진다면 전근대 주류 사상으로서의 성리학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조응하는 성리학의 면모를 보다 적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